

# 統監府時期의 語彙整理와 그 展開 —池錫永의 『言文』을 중심으로—

李秉根

## 1

이른바 開化期를 대체로 1870년대의 開港으로부터 1910년의 庚戌國恥로 잡는다면 統監府時期는 1905년말부터 위의 庚戌國恥(나아가서 朝鮮總督府 설치)까지로 잡을 수 있다. 이 시기는 훈민정음 창제 이후로 語文整理 운동이 역사상에서 한 에포크를 보였던 때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국어학의 역사 서술에서 이 시기의 어문정리 운동에 대하여 비상한 관심을 보여 왔는데, 이는 너무나 당연한 작업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어문정리 운동에 대한 서술은 그 문화사적 배경 이외에 주로 문자체계의 새로운 확립과 표기법에 초점을 맞추곤 하였다. 그것도 개화기 학자들이 論說이나 研究案 자체에 대한 이해에 그치고 당시 학자들의 실제 표기와 연결시켜 검토한 일은 별로 없었다. 필자는 「近代國語時期의 語彙整理와 그 辭典의 展開」, 「開化期의 語彙整理와 辭典編纂」 등의 글을 통해서 어휘 정리를 사전 편찬과 관련시켜 살펴본 바 있다. 어문정리 가운데서도 어휘정리에 초점을 두려는 이 글에서는 통감부시기에 관심을 보였던 어휘정리를 池錫永의 『言文』을 통해 이해하여 보려 한다. 1907년에 간행된 『言文』을 기본자료로 삼은 이유는 지금까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新訂國文」을 제기하여 이를 바탕으로 國文研究所의 설립과 활동이 본격화되었고 새로운 어문정리 운동이 확장된 시기가 바로 이 통감부 시기인데, 바로 이 시기에 『言文』이 간행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어휘정리를 다양하게 보인 대표적인 경우는 1909년과 1910년 사이에 간행된 『大韓民報』인데, 여기에는 ① 새로이

제정된 법령이나 규정에 들어간 「新來成語」에 대한 문답식 이해 ② 고유어를 중심으로 한 한글 표기와 그에 대응하는 한자 표기로 정리한 「名詞輯要」 ③ 정확한 한자 풀이로 正·訛를 밝힌 「俚言覺非」 ④ 사전식으로 '가-~호-'까지 배열한 「辭典研究草」들이 연재되었다. 이들 가운데서 『言文』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한자어들의 정리는 「新來成語」인바, 이 새로이 들어와 이루어진 한자어들은 대부분이 일본어 한자어들이다. 예컨대

問. 事務引繼라又驛屯土引繼라稱호는引繼의意義는如何

答. 引繼라함은 甲의所有호者나或管理호든者를 乙의계移屬호는意義니前任官吏가後任官吏의계所管事務를 移屬함과 田畠什物을 買賣호結果로 甲이 乙의계移屬호는 時에 使 用함

이라 하여 '引繼'가 新來成語임을 알 수 있다. '弓繼'는 우리말 '傳掌'에 대한 일본어 한자어로 『言文』에 등재되지 않았다가 『朝鮮語辭典』(文世榮, 1938)에 와서야 표제어로 실리게 되었다.

1910년 10월 1일 이른바 朝鮮總督府가 세워지고 곧 발행이 시작된 『朝鮮總督府月報』의 제1권 제7호에 『朝鮮語國語字音用字比較』가 실렸는데, 이는 본래 官立漢城外國語學校에서 1909년에 지어 한국에서의 일본어 교육상의 참고로 삼은 것으로서, 국어와 일본어의 한자어 372개를 비교해 놓은 것이기에 통감부 시기를 거치면서 그 뒤에 일본어 한자어가 국어에 침투된 사실을 부분적으로 알 수 있게 한다. 예컨대 그 중 『朝鮮語國語用字比較例』의 대조목록에 '食口'와 '家族'이 각각 우리말과 일본어로 대조되어 있는데, 『言文』에는 '食口'만이 있고 일본어 '家族'은 없었다. 그런데 조선총독부의 朝鮮語辭典 (1920)에 '家族'이 '家'의 부표체항으로 실리고 '①一族. ②一家内の者'로 풀이되어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1920년 이전에 일본어 '家族'이 이미 차용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상의 몇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이 글에서는 우선 池錫永의 國文之法 주장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것과 『言文』의 표기 사실을 대조해 보고서는 끝으로 한자어를 검토하고 『言文』의 「朝鮮語國語用字比較例」 일본어 한자어가 국어에 차용된 과정을 국어사전들과 대비하여 확인해 보려 한다. 이는 곧

語彙史에서 『言文』의 한자어들이 차지하는 시대적 의의를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고를 염음에 참고사전으로 한불자전(1881), 국한회화(國文字集)(1895), 한영자전(1897)과 조선어사전(1920), 조선어사전(1938), 큰사전(1947~1956) 등이 이용되고, 池錫永의 字典들과 여러 논설·연구안 등이 추가된다.

## 2

池錫永(1855~1935)이 國文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보인 때는 통감부 시기이다. 국문에 관한 그의 論著가 대부분 이 시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국문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된 간접적인 동기는 1876년에 開港한 釜山에 가서 일본인 거류민을 위한 서양식 일본병원을 찾았던 때에 비롯된 듯하다고 한다:

池錫永은 ..... 1879년 10월 부산에 도착하였다. 池錫永은 일본인 거류지의 濟生病院을 찾아가서 자기의 뜻을 일본어를 모르므로 筆談으로 피력하였다. 이 병원의 원장 松萬讓과 의사(해군 군의관) 戸塚積齋는 池錫永의 열의에 感服하여 池錫永에게 種痘法을 가르쳐 주기로 하고, 그 대신 池錫永은 당시 일본인 거류민들이 편한 준비를 하고 있던 「言語大方」 등 일종의 한국어를 배우기 위한 朝日辭典의 한국어의 誤字를 바로잡아 주기로 합의하였다.

池錫永의 2개월간의 釜山生活은 평생에 걸쳐 그의 學問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는 여기서 西洋種痘法을 배우고 ..... 또한 이 때 일종의 朝日辭典의 한국어 부분의 교정을 보다가 國文法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慎鑑廬(1985)에서 이렇게 본 것도 어느 정도로 납득이 갈 만한 것이기는 하나, 1869년에 『東文字母分解』를 지은 漢學者 姜瑋(1820~1884)는 중국 梁啓超 등의 영향을 받은 民族自覺意識이 강했던 開化派 인물인데 池錫永이 실은 이 姜瑋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朱昇澤(1991)에 다음과 같은 언급이 보인다.

姜瑋는 50세를 전후한 시기에 역관인 邊普桓의 집에 기거하며 청계천에 놓인 여섯번짜리 다리인 廣橋 일대에 살던 역관들과 어울려 지냈는데 이때 읊은 시편을 모

은 것이 광인사본『古歡堂收草』의 卷之十一「六橋聯吟集」이다. 이 시절에 姜瑋를 스승으로 모시고 함께 시를 읊은 인물들 가운데는 池錫永·錫永 형제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姜瑋와 함께 시를 읊었던 池錫永은 국문에 대해서도 愈吉濬과 함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한다(愈吉濬 1987). 姜瑋는 특히 國漢文混用과 깊은 관련이 있다. 純漢文으로 간행하던 『漢城旬報』(1886~)를 國漢文混用의 漢城周報로 바꾸어 연구한 책임자가 바로 姜瑋였는데, 그는 “宦官을 통하여 内人들이 소장하고 있던 여러가지 諺文책을 참고로 하여 國漢文섞어 쓰기의 새 文體를 만들었다.”(崔俊 1990:27)고 한다. 그 뒤 이것이 개화파들에게 확산되어 결국 高宗의 언어정책인 “以國文爲本 漢文附譯 混用國漢文”으로 발전하였는데 이는 1894년 勅令으로 공표되었던 것이다.

요컨대 『훈민정음』(1446)의 전통을 이어받은 柳僖의 『諺文志』(1824)와 비슷한 구성으로 姜瑋가 『東文字母分解』(1869)를 지어 한자어(‘東音’)조차 ‘諺文’으로 표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였다면 이 姜瑋의 영향을 또다시 池錫永이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영향하에서 그가 釜山에서 일본인을 위한 「言語大方」 등의 국문 교정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한다. 姜瑋나 池錫永은 당시까지는 일본어를 몰랐었기에 일본의 國漢文交作法을 알 수는 없었을 것이고, 국문전용까지 실천하지 않았을 것이다.<sup>(1)</sup>

1885년에 간행한 池錫永의 대표 저서의 하나인 『牛痘新說』은 순한문으로 저술되었는가 하면 『牛頭節目(忠清道)』(1881)도 순한문으로 되어 있으나 1891년에 저술한 『신학신설』은 순국문으로 되어 있다. 이러면서 5년 뒤인 1896년에는 순국문으로 「국문론」을 썼고 다시 1901년에는 字書인 『訓蒙字略』을 짓기도 하였다. 드디어 1905년에 새로운 문자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新訂國文」을 창안하여 議政疏를 옮김으로써 이 제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國文研究所의 창립을 보게 되었고 國文議政案이 마련되게 하였다.

(1) 본래 漢學을 했던 池錫永은 周時經과 내왕이 있었고 ‘國文(法)’에 관한 의견 교환도 있었으며 독립협회 회원으로도 열성적이었는데, 이러한 그의 정신은 國文自覺과 함께 깊이 되새겨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1909년에 그간에 준비해 온 『言文』과 『字典釋要』를 발행함으로써 통감부 시기는 池錫永에게 국문(법) 연구의 황금기가 되었던 것이다. 그 뒤로는 '愛國歌'란 시를 짓기도 하고 1921년에 조선총독부 학무국에서 제정한 「普通學校用 謢文綴字法」의 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보면 池錫永은 漢文의 세계와 國文의 현실 사이를 오간 셈인데, 그에게 영향을 미친 개화파 한학자 姜瑊 다음 세대의 시대적 상황과 통하는 점이 있다. 한문 사용과 국문 사용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는 「國文론」에 그의 생각이 잘 반영되어 있다.

…… 국문이 잇스되 헝 헝기를 견일 헝지 못 헝면 그나라 인민도 그나라 국문을 귀중 훈줄을 모르리니 엊지 나라에 관계가 쳐다 헝리오 …… 우리 나라 국문을 읽어 보면 모다 평성뿐이오 놓게 쓰는거슨 업스니 놓게 쓰는거시 업기로 어음을 거록 헝기 분명치 못 헝야 東 동녁동즈는 본력 나즌즈즉 동 헝려니와 動 움즉일동즈는 놓흔 즈연마는 동 외에는 다시 표흘거시 업고 棟 디들쏘동즈는 움즉일동즈 보다도 더 놓것마는 동 외에는 쪘 다시 도리가 업스며 棣 버릴기 레 버릴열 이 두 글즈로 말흘진던 첫즈에 표가 업스니 국문으로 만보면 레 버릴열즈 뜻도 棣 버릴기즈뜻과 叉흐며 舉 들거 野 들야 두즈도 국문 으로 만 보면 과연 분간 헝기 어려운지라 이려 흄으로 여간 한문 헝는 사률 다려 국문을 계집사률의 글이라 헝야 치지도위 헝기로 국문이 점점 어두어 국가에서 국문 내신 본의를 거의 낚게 되야스니 가석 헝도다 …… 내시험 헝야 어린 오 헝를 몯쳐 국문을 ㅋ르쳐서 양성 거성 표만 분간 헝야 널으되 점 헝나 찍은 죵는 음을 죠곰만치 누루고 점 둘찍은 죵는 음을 죠곰 더 누르라 약속 헝고 척에 표를 헝야 주었더니 ㅋ르칠것 업시 뜻을 다 아니 이법은 진지 국문에 데일 요진훈 거시로다 ……

요컨대 국문전용을 전제로 한 논의로 국문전용을 하다 보면 어음을 분명히 기록할 수 없는 점이 있게 되는데, 그 중요한 한가지로 음의 고저를 지적하였다. 그 예로 '東, 動, 棟'이 높은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동'이라 국문으로 적으면 구별할 도리가 없으며 '버릴기(棄)' 버릴열(列)과 '들거(舉)' 들야(野)'도 국문으로만 보면 분간하기 어렵기 때문에 점을 찍어 표를 하는 법이 국문에 제일 요진한 것이라 하고 있다.<sup>(2)</sup> 한자는 고유어든

(2) 이러한 방식을 『訓蒙字略』에서는 적용하지 않았으나, 『字典釋要』에서도 강조하면서 한자에는 이미 적용하였다. 다만 국문에는 표시하지 않았다.

간에 국문전용시에 이 國文法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하나의 과정을 전제로 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그것은 국문과 한자(또는 한문)의 학습 관계이다.

우리 나라 어린 유히를 처음에 천조문 그르침은 전국에 통속이라 가량 몽학 선  
성이 한문은 모르고 국문만 아는 사름이 잇셔서 유흥을 그르치랴 흔면 려 베릴열  
棄 베릴기 이 두조 뜻을 엊지 분간 흐야 그르치리오 내가 흥상 여기 담답흔 모  
음이 잇셔서국문에 유의 흐다 흐는 사름을 더 흔면 미상불 노노히 강론흐더니

즉 池錫永은 국문전용만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국문표기에 성조표시가 효과적이라면서 한자·한문도 알아야 할 것을 염두에 두었던 것이다. 일찍 이 崔世珍은 국문과 한문의 修學次序에 대하여 『訓蒙字會』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무릇 시골이나 지방사람들 가운데, 언문을 모르는 이가 많아서, 이제 언문자모를 함께 적어 그들로 하여금 먼저 언문을 배운 다음 훈몽자회를 공부하게 하면, 혹시 밝게 깨우치는 데에 이로움이 있을 것이니, 비록 스승의 가름침이 없더라도 한문에 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sup>(3)</sup>

이는 諺文字母를 『訓蒙字會』의 첫머리에 덧붙인 동기에 대한 언급이기는 하나 국문을 먼저 습득하는 것이 한자를 배워 한문에 통할 수 있는 길임을 강조한 것인데, 池錫永도 『字典釋要』가 訓蒙을 위한 것이라면서 비록 婦孺樵牧이 며칠을 소비해서 국문을 해득하게 되면 선생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고서도 능히 깨우칠 수 있다<sup>(4)</sup>고 하여 거의 같은 태도를 지녔던 것이다. 물론 崔世珍의 시대와 池錫永의 시대는 상황은 물론이요 정신도 달랐다고 해야 할 것이다. 池錫永이 『言文』이나 『字典釋要』를 지은 시기는 이미 高宗의 어문정책인 總以國文爲本 漢文附譯 或混用國漢文(1894)이 강조되어 진행되고 있었던 때이고, 1928년 무렵에는 閣議의 결정에 따라

(3) 凡在邊鄙下邑之人 必多不解諺文 故今乃并著諺文字母 使之先學諺文 次學字會 則庶可有曉誨之益矣 其不通文字者 亦皆學諺而知字 則雖無師授 亦將得爲通文之人矣

(4) 此書度爲訓蒙 雖婦孺樵牧費了幾日之土解得國文 則不待師教能曉

各官廳의 公文書類는 一切 허國漢文을 交用하고 純國文이나 外國文字의混用을  
不得 声

을 시행하도록 하였던 때이다. 즉 國漢文混用이 권장되던 때인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李能和가 「國文一定意見」(1906)에서 언급한 것처럼 國漢文並用이 便利之法이라 하지만 다음과 같은 4가지 방식이 쓰였던 것이 통감부 시기의 현실이었다.

- 一. 天地之間萬物之中唯人最貴 純漢文唯雅者讀
- 二. 텐디 소이만물 가운데 오직 사람에게 가장 귀하니 純國俗者讀
- 三. 天地之間萬物之中에唯人이最貴하니 今之國漢文交用法俗者假不能讀
- 四. 天地之間萬物之中에唯人이  
    텐디 소이 만물 가운데 오직 사람  
    最 貴하니 漢字側附書諺文雅俗共讀  
    가장 귀

o) 「純漢文, 純國文, 國漢文交用法, 漢字側附書諺文」의 4가지 표기방식에 따라 李能和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일을 주장하였다.

- 一. 延請博學多聞之人 乎야 日本字典輯述國文寫典一部 売事  
    之最良著
- 二. 小學教科書漢字側에附書諺文 売事
- 三. 輯述國誨規範一冊 乎야添入國語一科於小學校 乎事

여기서 ① 국어사전 ② 국문 달아쓰기 ③ 국어규범서 편술과 국어과목(초등학교) 설치를 강조하였는데, 네가지 표기중에서 (漢字側)附書諺文을 訓蒙에 사용할 것을 주장한 셈이다. 이 附書諺文의 표기방식은 國漢文交用을 전제로 하고서 漢字·漢字語에 해당하는 우리말(고유어 및 외래어)을 국문으로 달아 줌으로써 초기에는 국문만으로도 읽고 알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國漢文混用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방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문과 국문 그리고 국한문을 선택적으로 모두 쓰는 시대라면 이들을 모두 알아야 할 터인즉, 통감부 시대가 바로 그러했던 것이다. 특히 國漢文混用이 강조되었던 이 시기에는

天地/텐디 間/소이 萬物/만물 中/가온더 唯/오직 人/스람 最/가장 貴/귀

와 같이 국문만을 읽을 수도 있고 漢韓對應까지 알아야만 俗者와 雅者가 모두 雅俗共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방식을 좁혀 보면 漢文 對國文의 문장 차원이 아니라 단어 차원으로 결국 한자로 표기된 한자어에 대하여 국문으로 표기되는 고유어 또는 외래어(한자어)에 대한 지식이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뒤에 다시 언급할 『言文』을 지은 동기가 되는 것이다.

만일 단어 차원에서 국문표기를 달아 붙인다면 결국 문장 차원으로 확대되는 셈인데, 이에 따라 국문의 本 즉 '國文(之)法'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문자체계가 확립되고 그 문자들에 의한 맞춤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작업은 이미 『훈민정음』에서 비롯되어 崔世珍의 『訓蒙字會』의 「諺文字母」, 『眞言集』의 「諺本」, 柳僖의 『諺文志』, 姜瑋의 『東文字母分解』 등으로 이어진 하나의 전통이었던 것이다. 이 전통을 이어받아 '新訂國文', 國文一定法(一定國文之法), 國文同式法, 國文(之)法, 緡字法'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특히 통감부 시기를 거쳤던 것이다.

통감부 시기에 池錫永, 李能和 등의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든, 國文研究所 같은 기관에 의해 이루어졌든 國文(之)法 모두가 정부에 제출된 의견들이었다.

池錫永의 「新訂國文」은 議政府 官報 제3200호(1905. 7. 25.)에 실렸는 바,

#### 新訂國文五音象形辯

新訂國文初中終三聲辯(初聲終聲通用八字, 初聲獨用六字, 中聲獨用十一字)

新訂國文合字解

新訂國文高低辯(字音高低標, 做語曳聲標)

新訂國文疊音刪正辯

新訂國文重聲釐正辯

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文字 合字 緣字를 중심으로 한 一定案의 성격을 띠는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조선시대의 전통을 잇되 자신의 교정을 거친 것이었다. 이 중에서 高低辯의 내용을 이미 그의 「국문론」(1896)에서 교정하여 제시한 바 있는데, 池錫永이 늘 강조했던 것이기도 하다.

李能和가 학부에 제출한 「國文一定意見」은 순한문으로 『皇城新聞』 제2615호(1906. 6. 1-2)에 게재되었고 또 『大韓自強會月報』 제6호(1906. 7. 31)에 국한문혼용으로 게재되었는데, 그 내용은 韓日兩國이借用漢文하고 또 각각 國文(諺文)과 假名이 있음을 고려하여 漢文으로 交作하면 편리무비라고 생각하고 교육의 기초는 小學에 있으니 이의 國文一定之法이 小學之性質에 적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姜瑋·池錫永 등의 경우와는 달리 親和의인 태도로 순국문을 전제로 한 한글 맞춤법통일안의 경우와도 차이가 있다.

國文研究所(1907-9)는 “國文의原利와沿革과現行用과將來發展等의方法을研究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으나, 잘 알려진 바와 같이 池錫永의 「新訂國文」이 學部에 제출됨으로써 이를 검토함을 실제의 작업목표로 삼았던 것이다. 이 검토의 최종 검토안인 「國文研究議政書」의 과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 一. 國文의淵源과字體及發音의沿革
- 二. 初聲中 Ⓜ Ⓝ Ⓞ Ⓟ Ⓠ Ⓢ 八字의復用當否
- 三. 初聲의 ㄱ ㅂ ㄷ ㅈ ㅋ ㅌ ㅍ ㅎ 六字並書의書法一定
- 四. 中聲中 、字廢止 = 字刪製의當否
- 五. 終聲의 ㄷ ㅅ ㅈ ㅊ ㅌ ㅎ 六字도終聲에通用當否
- 六. 字母의七音과清濁의區別如何
- 七. 四聲票의用否及國語音의高低法
- 八. 字母의音讀一定
- 九. 字順行順의一定
- 十. 級字法

위의 열 과제는 결국 초·중·종성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추려 논의할 주제들이다. 그리고 문자 이름과 字順·行順, 끝으로 당시에 周時經 등에 의해 제기된 풀어쓰기에 대한 級字法의 과제들이다. 말하자면 조선시대 이래로 전통으로 내려온 문자체계와 철자법 등에다가 「新訂國文」에서 제기된 것들을 종합하여 검토한 것이다. 검토 결과는 대부분 조선시대의 전통에 따르는 것이었다.

그러면 池錫永은 그가 다시금 「國文研究案」에서 제기한 과제들의 생각을 그의 대표저서의 하나인 國·漢對照의『言文』에서 어떻게 반영시켰는가. 그리고 한자어들을 어떻게 정리하였는가.

『言文』은 서문 2면, 범례 2면 상편 171면, 하편 36면, 모두 211면의 책으로, 상편은 “한자(漢字)로 국문(國文)을 디조(對照)하여 국어된 소이연(所以然)을 발명(發明)하고”와 같이 일종의 한자어 어휘집으로 國漢對照辭典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하편은 “한자자의(漢字字意)를 국문(國文)으로 주석(注釋)하였으니 국문(國文)만 통(通)하면 무시(無時)로 험용(行用)하는 국어(國語)의 본면목(本面目)을 가히 투득(透得)할지라”와 같이 일종의 字書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국문과 한문(한자) 양쪽에 대한 지식을 요청한 사정에 대하여는 이 『言文』의 서문에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소이(所以)로 국속(國俗)이 한문(漢文)을 대단승상(大段崇尚)하여 인자(人材)를 양성(養成)하난 것이 비초막가(非此莫可)라 하더니 근°년(近年) 이리(以來)로 풍기(風氣)가 대변(大變)하여 한문(漢文)만 전주(專主)하다가는 무정(無情)한 셰월(歲月)을 허송(虛送)하고 유한(有限)한 심력(心力)을 도비(徒費)하야 가소성공(假使成功)이라도 일개(一個)로°학구(老學究)에 불과(不過)라 하야 어시호(於是乎) 한°문(漢文)에 전력(專力)하든 소상(思想)을 국문(國文)과 상반(相半)하야 국한문교작법(國漢文交作法)이 시°형(施行)되어 각종학문(各種學文)을 순전(純全)이 국한°문(國漢文)으로 번역(翻譯)하야 한°자(漢字)를 약간(略干)만 통하여 능(能)히 전편문의(全篇文義)를 헤°득(解得)하니 실(實)노 교육상(教育上) 제°일편이(第一便易)한 방법(方法)이로다

즉 이 『言文』은 당시에 이미 시행되고 있던 國漢文交作法(즉 국한문혼용법)을 전제로 그에 맞추어 漢字語와 漢字를 교육시키기 위하여 저술된 것으로 ‘가로 街路……, 가화만사성 家和萬事成……’ 등과 같이 한자어 또는 한문구절을 국문과 한자로 대조하여 편집한 것이며, 이에 필요한 한

자를 음에 따라 『千字文』, 『類合』, 『訓蒙字會』 등처럼 ‘가 街거리 歌노래 嘉아름다을 ……’처럼 한자와 그 訓釋을 달아 놓아 편집한 것이다. 19,000 여개의 어휘중에는 일반어휘가 대부분이지만 고유명사 등도 상당수 들어 있다.

### 〈人名〉

강감찬 美邯贊 김유신 金庾信 김부식 金富軾 김덕령 金德齡 김응하 金應河 등

### 〈郡邑名〉

가평 加平 간성 干城 갑산 甲山 강릉 江陵 강화 江華 강계 江界 강진 康津  
개천 价川 지성 開城 경성 京城 경홍 慶興 고성 固城 공주 公主 괴산 槐山  
금산 錦山 김천 金泉 김포 金浦 김해 金海 김화 金化 동복 同福 면천 洵川  
전주 全州 홍주 洪州 황간 黃澗 등

### 〈道名〉

강원도 江原道 경기도 京畿道 경상도 慶尙道 경남 慶南 경북 慶北 전라도  
全羅道 忠清道 충남 忠南 충북 忠北 평안도 平安道 함경도 咸鏡道  
황해도 黃海道 등

### 〈國名〉

가락국 駕洛國 고구려 高句麗 덕국 德國 법국 法國 불란서 佛蘭西 미국 美國  
애굽국 埃及國 영吉利 英吉利 아라스 俄羅新 파란국 波蘭國 중국 中國 등

### 〈洲名〉

구라파 歐羅巴 아미리가 亞美利加 아세아 亞細亞 등

### 〈宮·樓·陵名〉

경희궁 慶熙宮 경복궁 景福宮 창경궁 昌慶宮 창덕궁 昌德宮 경회루 慶會樓  
건원릉 健元陵 등

### 〈山名〉

가야산 伽倻山 빅두산 白頭山 태백산 太白山 한나산 漢拏山 등

## 〈江名〉

대동강 大洞江 두만강 豆滿江 락동강 落東江 암녹강 鴨綠江 청천강 清川江  
한강 漢江 등

## 〈書名〉

가명잡지 家政雜誌 강희자전 康熙字典 규장전운 奎章全韻 동국통감 東國通鑑  
동의보감 東醫寶鑑 관성례군각세진경 關聖帝君覺世真經 사례편람 四禮便覽  
화동정음 華東正音 등

고유명사든 보통명사든 당시에 널리 쓰이던 한자어를 모은 것이다.

전국동포(全國同胞)의 언스(言辭)에 한문음(漢文音)으로 험용(行用)하야 인(因)이 국어(國語)된 것을 약약조사(略略調查)한즉 일만구천여(一萬九千餘) 귀절(句節)이기 ……

어휘들이 국어화한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예컨대 일찍부터 ‘法國’이 쓰여 왔는데, 여기에 새로 일본어 한자어인 ‘불란서 佛蘭西’가 차용되어 쓰이게 되어 둘 다『言文』에 올린 것이다. 이 책에는 당시에 새로이 쓰이게 된 단어들이 더러 실려 있다. ‘기독교 基督教, 텐주교 天主教’, ‘대통령 大統領, 총리대신 總理大臣, 통감 統監’, ‘대학교 大學校, 소학교 小學校’, ‘황인종 黃人種’ 등등이 이런 예들일 것이다. 이 점에서 池錫永은 개화파답다.

그런데 ‘가로 街路 …… 관성례군각세진경 關聖帝君覺世真經’ 등과 같이 모두 2음절 이상의 한자어만이 상편에 실려 있고 단음절어는 단 하나도 실리지 않았다. 이는 하편이 字書처럼 짜여 있어서 단음절의 한자어를 모두 하편에 편입시키고 상편에서는 생략한 듯한데 경제성을 고려한 때문일 것이다. 예컨대 ‘江, 山, 詩, 厄, 王, 點, 桶, 兄 ……’ 등이나 ‘一, 二, 三, 四, 五, ……, 九, 拾’ 등과 같은 단음절어들이 그러하다. 그 결과 音引字書의 형식인 하편에 실린 한자들이 어디까지 자립적인 단어로서의 한자어로 당시의 국어에서 쓰일 수 있었는지 현재로서는 파악하기 어렵게 되어 버렸다.

수록어휘들의 배열 순서는 ‘가, 각, 간, 은, 갈, 감, 잡, 강, 개, 기, 칙, 킹’, ‘거, 견, 겸, 겁’, ‘계’, ‘격, 견, 결, 겸, 경’, ‘계’, ‘고, 곡, 골, 공’, ‘괴,

평’, ‘교’, ‘구, 국, 군, 줄, 궁’, ‘구’, ‘규’, ‘극, 근, 금, 궁’, ‘거’, ‘기, 찌, 진, 질, 김’, ‘과, 곽, 관, 광’, ‘꽤’, ‘권, 퀸’, ‘캐’ 등과 같다. 즉 모음의 순서는 ‘ㅏ(.) ㅑ(.) ㅓ(.) ㅕ(.) ㅗ(.) ㅕ(.) ㅚ(.) ㅓ(.) ㅕ(.) ㅣ(.) ㅕ(.) ㅚ(.)’이다. 여기서 끝에 ‘나, 거’를 위치시킨 것은 조선시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이 순서는 하편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池錫永은 「新訂國文」, 「大韓國文說」에서는 ‘ㅏ ㅑ ㅓ ㅕ ㅗ ㅕ ㅚ ㅓ ㅕ ㅣ = ㅣ’의 中聲十一字의 音讀順序을 주장하였으나 그의 「國文研究案」에서는 ‘ㅏ ㅑ …… ㅓ ㅕ ㅡ ㅣ 、<sup>이음</sup> ㅣ’으로 音讀一定을 제시하고서 字順一定에서는 ‘ㅏ ㅑ …… ㅓ ㅕ ㅡ ㅣ 、<sup>이음</sup> ㅣ’으로 제시하여 ‘、’의 순서에 차이를 보였다.<sup>(5)</sup> 音引辭書式이라면 行順一定에 따를텐데, 「國文研究案」에서 行順을 ‘가 나 다 라 …… 카 타 파 하’로만 정하였다. ‘、’의 위치가 명시되지 않았다. 『言文』의 行順이 ‘ㅏ(.) ㅑ(.)’와 같이 된 것은 한자음에서만 ‘, .’를 쓰고 고유어음에는 일체 쓰지 않은 사실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國文研究案」은 以國文爲本에 따라 순국문만을 전제로 한 것이었기에 行順에 ‘, .’는 언급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國文研究案」 자체는 국한문을 섞어 썼는데, 池錫永 자신은 ‘、’를 일체 쓰지 않았다. 그리고 『字典釋要』(1909)에서도 고유어는 물론이고 한자어에서도 ‘、’는 ‘現行俗音’으로는 더 이상 쓰지 않았다. 범례에서 토를 달 때에만 ‘~ㅎ야’처럼 쓴 곳이 좀 있는데, 이는 諺文釋音參酌小學諺解凡例 때문이었다. 그리고 原音 표시에서 필요시에 ‘宅 · 國居也집택 …’처럼 하여 原音과 俗音을 구별하였던 것이다.

자음의 배열순서에서 특이한 것이 이른바 된시옷 ‘ㅅ ㅆ ㅇ ㅆ’의 순서이다. 당시의 한자음에서 합용병서가 쓰인 예로는 ‘찌(喫 吱) 먹을’밖에 없다.

#### 찌고喫苦 찌반喫飯 찌인喫人 찌설喫說

이들은 ‘기° 세棄世’와 ‘긴요緊要’ 사이에 배열되어 있다. 즉 ‘기~긴’ 사

(5) 池錫永은 ‘、’를 ‘<sup>이음</sup>’으로 보고서 새로운 문자 ‘=’를 창안하였으나, 『兒學編』(1908)을 제외하면 실제로 이 새문자를 직접 쓴 일은 없다. 周時經도 池錫永과 교류하면서 같은 해석을 피하였으나 문자를 창안하지는 않았다.

이에 놓여 있다. 그런데 초성 ‘ㅆ’은

쌍쌍雙雙 쌍룡雙龍 쌍분雙墳 씨족氏族 씨명氏名

의 예들이 보이는데, 이들은 각각 ‘샹~식’, ‘십~쇄’ 사이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면 ‘시’과 ‘ㅆ’ 사이에는 순서상 분명한 차이가 있다. 즉 ‘시’의 경우에 맞춘다면 ‘상’과 ‘시’ 다음에 각각 위치시켜야 하는데, ‘샹’과 ‘십’ 다음에 각각 배열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시’을 된시옷으로 해석한 셈이고 ‘ㅆ’은 각자병서로 인식한 셈이다. 흔히 본래는 ‘ㅆ’이 각자병서였다가 국어 표기법에서 각자병서가 없어지고 합용병서로 바뀐 사실로부터 된시옷으로 보고 있다(李基文 1972:49). 池錫永은 합용병서인 ‘시’을 된시옷 계통으로 보지 않고 ‘ㅅ’과 같은 반복부호로 보아 각자병서를 대신한다고 생각하였다. ‘시, 시, 쟈, 쟈’을 반복으로 보았고 ‘ㅆ’은 15세기처럼 각자병서로 보아 반복의 ‘ㅅ’과 각자병서 ‘ㅆ’의 앞 ‘ㅅ’, 이 둘을 구별하기 위해 배열순서를 달리하지 않았나 싶다.

‘시’ 이외에는 이른바 된시옷이 한자음에서 쓰이지 않았으나 하편에서 한자의 訓釋에는 ‘시’은 물론이고 ‘시, 쟈, 쟈’ 등이 상당히 많이 쓰였다.

〈시〉 : 꽃 꽃 꿈 꼬리 끼고리 훥 토씨 합씨 드깨 져짜락 짹글 췈 물꼬를 찔찔 할 .....

〈시〉 : 뜻 짬 뜰 씨 쪽 짜지 썰기 뜯떳할 죄려질 땃땡할 썰칠 .....

〈쟈〉 : 셋뿔마름 뻣죽 쌤 빠질 뻣뻣할 나무즘썩할 빼여날 물뿌릴 .....

〈쟈〉 : 반쪽셔옥 쪽기 짹 씨를 쪼갤 씨글 쌀 쪼출 쌓길 목찌를 .....

〈ㅆ〉 : 쌀 쓸개 쌈 쑥 쌤 씨 글씨 씨 씨슬 무릅쓸 쓰려질 씨를 쓴을 씩씩살 싸서 구을

이른바 ‘사이시옷’의 표기는 적어도 『言文』에서는 모두 ‘ㅅ’만을 가지는데, 두 명사 사이에서 선행명사의 모음과 종성 다음에 모두 사용되었으나, ‘(ㄷ)ㅅ’ 종성 다음에는 쓰이지 않았다. ‘져짜락’은 특히 모음 다음에서 사이시옷이 합용병서가 가능한 ‘시’으로 형성된 것이고 ‘곤 閻문찌방’과 같이 ‘ㅅ’이 ‘사이시옷’이 아니라 후속명사의 초성 ‘ㅆ’으로 표기된 예가 보이기는 한다. ‘창 艇배짱’은 현대어에서는 ‘사이시옷’의 표기원칙에 따라 ‘뱃장’

으로 표기되고 있다. 그밖의 대부분은 ‘사이시옷’의 명칭대로 두 명사 사이에 ‘ㅅ’이 쓰였다. 이들 자료는 말할 것도 없이 한자에 대한 訓釋에서 보인다.

간 竿댓줄기	계 跡즈럼ㅅ길	고 薦벼ㅅ집
교 嶠산ㅅ길	균 困동근고ㅅ길	광 磽쇠ㅅ돌
뇌 (腦노)머리ㅅ꼴	동 棟집ㅅ대마루	량'樸들ㅅ보
류 旒괴ㅅ발	록 肋갈비ㅅ대	름 廩쌀ㅅ고
반 瘊지ㅅ자리	봉 峰산ㅅ봉오리	숙 塹글ㅅ방
애 涙물ㅅ갓	장 掌손ㅅ바닥	쥬 篴쥬ㅅ대
즉 廁뒤ㅅ간	파 疣현데ㅅ자리	판 痢외'ㅅ속
합 閣안중ㅅ문	형 衡저울ㅅ대	훈 熏불ㅅ괴운

이상의 ‘사이시옷’이 쓰인 환경을 보면 특별한 제약은 눈에 띄지 않는다. 즉 모음과 종성 ‘ㄱ, ㄴ, ㄹ, ㅁ, ㅂ’ 다음에 ‘사이시옷’이 나타나고 ‘ㅅ’ 다음에는 보이지 않으며 후속자음이 모두 평음일 때에 사이시옷이 보인다. 종성은 고유어의 경우 ‘ㄱ, ㄴ, ㄹ, ㅁ, ㅂ, ㅅ, ㅇ’의 7개이지만 한자음의 경우에는 ‘ㅅ’이 없이 ’ㄱ, ㄴ, ㄹ, ㅁ, ㅂ, ㅇ’의 6개임은 물론이다. 「新訂國文」에서는 조선시대의 전통을 따라 初終聲通用八字를 제시하였으나 ‘ㅅ, ㄷ’의 구별없이 ’棒밧을, 奉밧들’처럼 표기하여 실제로는 ‘ㄷ’종성을 쓰지 않았다.<sup>(6)</sup>

『言文』의 가장 특징적인 표기는 高低長短音의 표시에 있다. 池錫永은 그 일러두기에서

대°한언어(大韓言語)가 거반(居半) 한°문(漢文)의 조음(字音)으로 험용(行用)하나 한문조음(漢文字音)의 고저(高低)가 국어°(國語)의 어°훈(語訓)을 인(因)하야 변°(變)하난지라 시°이(是以)로 상°편(上篇)에난 능흔 ㅈ(字)라도 어°음(語音)에 낫게 험용°(行用)하면 둥근 뎀(點)으로 표(標)하였스니 그 규례(規例)를 의°론(議論)할진댄 큰 대(大)ㅅㅈ(字)와 적을 쇼°(小)ㅅㅈ(字)가 다 능것마는 대°인(大人)이라 쇼°인(小人)하난 데난 어°음(語音)을 능게 쓰기에 둥근 뎀(點)으로 표(標)하고 대본(大本)이라 쇼본(小本)이라 하난 데난 어°음(語

(6) 「國文研究案」에서 池錫永은 音理와는 직접 상관없이 ‘ㅅ, ㄷ’을 구별하지 않고 ‘ㅅ’으로 씀을 받아들이고 있다.

音)을 낫게 쓰기에 표(標)하지 아니하였스니 여기방초(餘皆倣此)함

과 같이 음의 고저 표시를 두 단계로 할 것을 언급하였고, 또

하편(下篇)에는 한°문(漢文)의 원음(原音)대로 능흔 眾(字)는 등근 흑점(黑點)으로 표(標)하고 어°음(語音)이 길게 되난 데난 등근 권점(圈點)으로 표(標)하였다스니 그 규례(規例)난 멀°원·(遠) 들°야·(野)의 류°(類) | 니 여기방초(餘皆倣此)함

이라 하여 음의 고저·장단 표시를 등근 흑점과 등근 권점으로 각각 구별하여 하였다. 예컨대 ‘멀°원·(遠)’은 ‘멀’이 고조로 ‘원’이 장음이라는 것이다. 결국 한자음을 대상으로 하는 상편에서는 고조표시인 등근 권점만을 사용하고 고유어까지 포함된 하편에서는 고조표시의 등근 흑점을 그리고 장음표시인 등근 권점을 사용함으로써, 등근 권점의 표시기능이 달라지고 있고, 상편에서는 고저만을 표시하고 하편에서는 고저와 장단을 모두 표시하는 방식의 차이도 보인다. ‘고’와 ‘저’, ‘장’과 ‘단’ 두 단계를 설정하고서 고저장단을 그렇게도 늘 강조해온 池錫永이 왜 이리 통일성을 갖추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다.

이상에서 보아『言文』은 開港 아래 제기되어 甲午更張으로 구체화된 고종의 언어정책인 以國文爲本 漢文附譯 混用國漢文의 흐름 속에서 池錫永이 이 정책에 따른 國文之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문 대 한문의 대조로 한자어를 자모순으로 배열한 詞典 형식의 상편과 이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字音別 분류의 訓釋을 각 한자에 달아놓은 字書 형식의 하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상편에는 단음절 한자어는 제외하고 2음절 이상의 19,000여 단어와 구절을 모아 국한문으로 대조시키기만 한 결과, 사전에서 흔히 요구되는 뜻풀이에서 ‘난 煖· 더을 暖上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多義性이나 類義性 등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 대신 국문 표기에는 철저를 꾀하려 하였는바, 대체로 그가 「新訂國文」을 정부에 제출하고 이를 國文研究所에서 議定하면서 늘 자신이 주장해 온 태도를 대체로 지키려 하였는데, 다만 고저장단 표시 이외에는 독창적인 주장을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당시에 대중들이 일반적으로 표기하고 있는 방식

을 대부분 그대로 취하게 되었다. 『言文』이란 책이름이 한자 지식을 전제로 하기는 하였으나 言文一致를 고려한 것이 아닌가 한다.

池錫永은 周時經과 같이 ‘、’를 단음이 아니라 ‘丨一’의 합음으로 인식하고서 ‘—’를 창안하여 이의 사용을 제기하였으나, 현실적으로 ‘、’가 쓰이지 않는다면 통일되지 않고 專一하지 않게 되어 “文明의 面目에 大段이 妨害가 有하리니”라는 이유로 ‘マニ’ 등 14자를 폐지하고 ‘가나’ 등 14자와 첨음되는 폐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國文研究案」에서 주장하게 되었다. 「國文研究議定案」에서 ‘、’와 ‘—’를 구별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결정과는 다른 태도였던 셈이다. 이러한 이유로 池錫永은 『字典釋要』(1909)에서는 일체 ‘、’를 쓰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그가 처음부터 가졌던 것은 아니다. 1901년에 편찬하였다는 字書인 『訓蒙字略』에서는 ‘主인군주 쥬장혈주’, ‘亟급혈극 빈삭혈괴’처럼 ‘ホ-> 허-’의 변화를 받아들여 ‘、’의 사용을 많이 기피하거나 ‘且 뜻차 어조스셔’와 ‘也어조사야’처럼 ‘ソ～사’의 혼기를 보이면서도 다음과 같이 ‘、’, ‘이’를 쓰고 있다.

1) 事일스 섬길스	仔능혈스	仕벼슬혈스 솔필스
似갓틀스 이을스	使하야금스 조신스	
2) 下알에하 너일하	代더신디 역티더	世인간세 디세
亥히시히	來울리 불울리	在잇슬지
坏혹덩이비	孟맛밍 성밍	坑구덩이징
宅집택		
3) 仕벼슬혈스 솔필스	曉虧해시	
4) 侏난징이쥬	削싸글奭 쎔슬奭	劈썩일벽
副돌썩부	勒지갈奭 시길륵	厭비부를염 편안혈염
久오털구	唱노리부를창 인도혈창	學비울학
央가운디앙 다혈엉	密썩 쎔혈밀	

1)2)에서처럼 ‘、’와 ‘丨’를 한자음에서 쓰고 있고 3)4)에서처럼 고유어에서도 이 둘을 모두 쓰고 있다. 이로부터 池錫永이 이 ‘、’와 ‘丨’를 쓰지 않게 된 것은 단계적이었고 『字典釋要』에 이르러서야 완전히 폐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와 ‘丨’의 표기에 한정시킨다면 『言文』은 과도기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言文』은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상편은 漢字語를 가나다순으로 배열하되 漢字別로 한곳에 끓어서 제시하였는데 이 끓음 안에서는 그 순서가 일정하지는 않았다. 예컨대 ‘經’字로 시작되는 한자어를 보면

경서經書 경도經度 경선經線 경년위디經天緯地 경연經筵 경륜經綸 경략스經略使  
 경력經歷 경리스經理使 경영經營 경위經緯 경숙經宿 경야°經夜 경난經難  
 경비經費 경용°經用 경년열세°經年閱歲 경락經絡 경문經文 경파°經過 경겁經劫  
 경과經科 경험°經驗 경험°방經驗方

과 같이 되어 있다. 국문과 한자(한문)를 대조시켜 놓은 이들 한자어들이 정확히 어떠한 뜻으로 쓰이었는지는 현재로서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시에 널리 쓰이고 있었던 것을 뽑았다 하니 틀림없이 쓰이고 있었던 것들일 것이다. ‘經書, 經驗方, 經濟, 經營’ 등처럼 전통적으로 쓰여 오던 것도 있을 수 있고 ‘經文’과 같은 것이 빠질 수도 있었으며, 또 ‘經線, 經緯’처럼 새로 쓰이게 된 것도 있다. 『言文』에 등장하는 ‘內容’도 전통적으로는 ‘裏許, 內坪, 속너평’ 등으로 쓰이던 것으로 여기서 새로이 실리게 된 예이다. 이 ‘內容’은 『한불자전』(1881)에서는 물론 볼 수 없었고 國漢會話 (1895, 内題 : 國文字集)나 한영자전 (1897)에서도 볼 수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등장한 ‘內容’은 『朝鮮語辭典』(1920)을 거쳐 현대 국어사전들에 계속 실려 내려 온 한자어다. 한편 『大韓民報』의 제2호~제136호까지 「新來成語(問答)」가 연재되었음을 앞에서 언급하였는데, 여기에 수록된 新來成語 139개는

此는日本人官吏가法令規則을起案한者를我國人이繙譯한時에適合한文字를究得지 못하고日本의俗語를仍用한所以라.

라는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 모두 일본어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139개 단어중 134개에 대하여 예컨대 ‘請負(日語우게오이) …’처럼 日本의 俗語 발

음을 한글로 표시하였는데,<sup>(7)</sup> 그중에 ‘取締’와 ‘書留’ 두 단어에 대해서는 각각 ‘我國語 團束’, ‘我國語 登記’라 덧붙이고 있다. 그리고 ‘議論(日語 기론)’에 대해서는 “我國의 議論은 日本의 相談(소단)의 意義와 同一호니라”하여 의미차를 부여하기도 하였다. 139개의 단어중에서 ‘權利(겐리), 手當金(데아데긴), 出張(슛조—)’ 등은 『言文』에 수록되어 있다. 새로이 차용한 단어들일 것이다.

이와 같이 『言文』의 한자어 정리는 국어의 語彙史를 관찰하는 데에 요긴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데, 어휘사적인 면에서 통감부 시기, 확대하여 말하면 개화기가 격동의 시기에 속하기 때문에 지대한 의의가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면에서 통감부 시기는 물론이요 1910년대부터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중국어 ‘法語, 德語’ 등이 일본어 ‘佛語, 獨語’ 등으로 대체된 것처럼 일본어의 어휘가 상당량 차용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본어 流入史를 관찰함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작업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자어가 우리의 것으로 인식되고 어느 한자어가 일본어의 그것인지를 우선 구별할 수 있어야 할 터인데, 불행중 다행히도 이를 일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 그것은 바로 머리말에서 언급한 「朝鮮語國語用字比較例」(1911)이다. 이는 일종의 分류어휘집으로 ‘人事·性行·身體·衣食·建築·器具·慶弔·交際·職業·經濟·地理·文書·時·雜’의 14부문으로 나뉘어 있다. 모두 372개의 한자어들인데, 표와 같은 방식으로 대조가 되어 있다(뒷면 표 참조). 이 표만 보아도 ‘食口’가 원래 우리말이요 ‘家族’은 원래 일본어였음을 알 수가 있는데, 『한불자전』, 『한영자전』, 『국한회화』, 『법한자전』(1901) 등은 물론이요 『言文』에도 없던 일본어 ‘家族’이 『말모이』와 일본 동경에서 간행된 『영한자전』(H. Jones 1914)에도 실리지 않다가, 『朝鮮語辭典』(1920)에 실렸고 『羅韓字典』(1936) 이외에 그뒤의 현대 국어사전들에 계속 실렸던 것이다. 이는 곧 ‘家族’이 원래 일본어였으나 한국어에 침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

(7) 때로 ‘積極的(西語 포시티브 日語 셋곡구데기), 消極的(西語 네가티브 日語 쇼교구데기), 相對的(西語 레르나티브 日語 소다이데그기), 絶對的(西語 압솔류트 日語제스데그기)’처럼 서양어 발음을 한글로 적어놓기도 하였다. 이는 아마도 서양어를 일본어로 번역한 것일 듯하다.

朝鮮語	國語	朝鮮語	國語
食口	家族	內子, 內相, 室人	妻
一家, 一哥	親類	親舊	朋友
三寸	叔父	文章	學者
同氣	兄弟	先輩	儒者
同生	弟	女卜	女, 盲人
四寸	從兄弟	白丁	穢多
內外, 兩主	夫婦	保人	保證人
男便	夫	一手	名人

게 한다. 이와 같이 『言文』은 ‘言’과 ‘文’의 대조를 목표로 하였으나 다시 「朝鮮語國語用字比較例」를 통해서 어휘사 연구의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어휘사 연구에 있어서 시대적 의의가 클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방식에 따라서 『語文』의 한자어와 「朝鮮語國語用字比較例」를 비교하여 어휘사, 특히 우리말 한자어의 폐어화와 일본어 한자어의 침투 사실을 확인하여 보려 하는데, 자연히 두 자료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한자어만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변화시기를 알기 위해서 두 자료 이외에 통감부 시기의 앞선 자료로 『한불자전』, 『국한회화』, 『한영자전』을 참고하고 『朝鮮語辭典』(1920), 『朝鮮語辭典』(1938), 『큰사전』(1947~1956)을 활용한다.

우선 『言文』에는 19,000여개의 한자어가 수록되어 있지만, 「朝鮮語國語用字比較例」에는 372개의 한자어밖에 없고, 그중에서도 양쪽에 공통적인 것은 300여개에 불과하다. 또 이 중에서 『한불자전』에서부터 『큰사전』에 이르기까지 「朝鮮語國語用字比較例」의 일본어가 한 번도 표제어로 등장하지 않은 130여개를 빼면 160여개가 남는다. 그중에 80여개가 이미 우리말과 일본어에 다 쓰이고 있던 한자어라서 실제로는 일본어 한자어가 그 뒤 차용된 것은 70여개가 된다. 전체의 5분의 1 정도가 되는데, 적지 않은 일본어 한자어가 우리말에 들어온 셈이다. 사전표제항으로 올랐다는 것은 이미 社會化된 형식과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전체로 표제화시킨 것이기에 말하-

자면 어문정리 특히 어휘정리를 끌냈다는 말이 된다.

그러면 이 70여개의 일본어 한자어가 어떤 사전에서 표제어로 각각 올리게 되었는가. 그러나 『言文』에는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그 이후에 표제어로 올린 것을 포함시켜 사전별로 보자(우리말/일본어).(\*는 『言文』에는 실리지 않은 것들임).

#### ◎ 조선총독부 『朝鮮語辭典』(1920)

1. 食口/家族	2. *先輩/儒者	3. 是非/爭論
4. 號令/叱咤	5. *呈狀, 呈訴/訴訟	6. 失手/失錯
7. 知覺/常識	8. 氣運/氣分	9. 妄發/妄言
10. 作亂/惡戲	11. 分揀/分別	12. 辱說/惡口
13. 滯症/胃病	14. *怪病/虎列刺	15. 疫疾/天然痘
16. *穀屬, 穀食/穀物	17. 懸板/額	18. 刻針/分針
19. 千里鏡/望遠鏡	20. 退延/延期	21. *石手匠/石工
22. *場/市場	23. 褒負商/行商	24. 物件/品物
25. 金錢/金貨	26. 銀錢/銀貨	27. 結錢, 稅納/租稅
28. 浮費, 所費/費用	29. *支撥, *支給/支拂	30. 沙汰/山崩
31. 防築/堤防	32. 山所/墓地	33. 下陸/上陸
34. 印朱/印肉	35. *文書, 文券,*文記/證券	36. 雜鬼/惡魔
37. 雜技/賭博	38. 工夫/稽古(之力)	39. 眼界/眺望
40. 理致/理屈	41. 緣故/事故	42. *層所/故障
43. 酒酌/推察	44. *地境/境遇	45. 没數/全部

#### ◎ 문세영의 『朝鮮語辭典』(1938)

1. 保人/保證人	2. 出入/外出	3. 傳掌/引繼
4. 團束/取締	5. 求乞/托鉢	6. 等狀/連署(*出願)
7. 吐說/自白	8. 客說, 客談, 客言/贅言	9. 發明/辨解
10. 病身/不具者	11. 快差/全快	12. *沒死/全滅
13. 毛物/毛皮	14. (*丹粧), 成赤/化粧	15. *亭子/別莊
16. 假家/露店	17. 層臺, 層層臺/階段	18. 家役, 役事/普請
19. *時表/懷中時計	20. 圖章, *圖書, *套書/印判	21. 帳幕/天幕
22. 還甲/還曆	23. 顏面/面識	24. 祇迎/奉迎
25. 作人/小作人	26. 兵丁/兵士	27. 散賣/小賣
28. 都中/組合	29. 直錢/現金	30. *本邊/元利

- |             |                  |                  |
|-------------|------------------|------------------|
| 31. 重邊/高利   | 32. *股金, *股本金/株金 | 33. *股票, *股本票/株券 |
| 34. 換錢/爲替   | 35. *標, 於音/手形    | 36. 本金, 本價/原價    |
| 37. 冊衣/表紙   | 38. 登記/書留        | 39. 文字/熟語        |
| 40. 掌記/商品目錄 | 41. 物目/送狀        | 42. 口招, 供招/口供    |
| 43. *馬上技/曲馬 | 44. *滿發/滿開       | 45. 查實/取調        |

● 조선어학회의『큰사전』

- |             |            |                |
|-------------|------------|----------------|
| 1. 議論/相談    | 2. 改差/更迭   | 3. 弄談/冗談       |
| 4. *生意/企圖   | 5. 葉草/葉煙草  | 6. *貲家/貸家      |
| 7. *壁石/煉瓦   | 8. 都給/請負   | 9. 大詳, *大葺/三周忌 |
| 10. 迎接/出迎   | 11. 見樣/雛形  | 12. 輕邊/低利      |
| 13. 出債/借金   | 14. *家貲/家貨 | 15. *清帳/皆濟     |
| 16. *致富冊/帳面 | 17. 通文/回章  | 18. 今番/今般      |
| 19. 文具/空文   |            |                |

앞의 사전에 일단 표제어로 올려진 것은 다음 사전에 그 대부분이 실리게 되어 계속 차용어가 늘어난 셈이다. 이상의 자료를 통해서 보면 조선시대로부터 전통적인 한자어를 많이 물려받았으면서도 얼마나 많은 일본어의 한자어들이 우리말에 침투해 왔는지 쉽게 알 수가 있다. 조선어학회의『큰사전』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로써 『言文』이 語彙史研究를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데,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 사이의 통감부 시기가 이러한 차용의 분수령이 된다면 『言文』은 더욱더 시대적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統監府 時期의 語文 整理를 특히 池錫永의 『言文』(1909)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言文』은 상·하편으로 짜여져 있는데, 상편은 한자어(한문구절 포함) 19,000 여개를 국문과 한문으로 대조시켜 제시한 詞典이요, 하편은 상편에 등장한 한자에 訓釋을 달아놓은 音引字書이기 때문에 본고는 자연히 어휘 정리에 초점을 두게 되었다.

상편을 중심으로 한 한자어들은 당시에 널리 쓰이고 있던 것들로서 전통적인 것 이외에 새로이 우리말에서 쓰이게 된 것도 부분적으로는 포함되어 있고 하편에 쓰인 訓釋의 한글 자료는 대체로 池錫永 자신이 「新訂國文」(1905)에서 보인 문자와 표기법에 따라 표기되었으나 ‘·→=’와 같은 新制文字는 사용하지 않았다.

표기상으로는 『言文』이 池錫永의 저작중에서 과도기에 속하는 것이었다. 표기와 교육상에서 늘 강조해 왔던 것은 고저·장단의 표시였는데, 『言文』에서도 이를 철저히 지키려 하였다.

統監府 時期가 조선 시대와 일제강점기의 중간 시기로 우리나라가 언어상에서도 큰 분수령이 되는 시기여서 『言文』의 한자어들은 변화 단계를 알아보는 데에 기점이 될 수 있는 자료이다. 『言文』과 「朝鮮語國語用字比較例」(1911)를 비교하여 그 전후 사전들을 통하여 검토한 결과,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많은 일본어의 한자어가 차용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따라서 『言文』은 語彙史研究를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되면서 높은 시대적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필자 : 서울대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 참고논저

- 高永根 編(1985), 國語學研究史, 學研社.
- 金敏洙(1963), 新定國文에 관한 研究, 아세아연구 5-1.
- 김형철(1997), 개화기 국어연구, 경남대학교 출판부.
- 박병채(1980), 『言文』에 관한 研究－聲調를 中心으로, 民族文化研究(高麗大) 15.
- 慎鏞廬(1985), 池錫永全集 解題, 池錫永全集(韓國學文獻研究所, 亞細亞文化社).
- 신유식(1993), 池錫永의 國文研究, 語文論叢(清州大) 8·9.
- 俞東濬(1987), 俞吉濬傳, 一潮閣.
- 李光麟(1976), 姜瑋의 人物과 思想, 東方學志(연세대) 17.
- 李基文(1970), 開化期의 國文研究, 一潮閣.

- 李基文(1972), 國語音韻史研究, 서울大 韓國文化研究所.
- 李基文(1977), 19世紀末의 國文論에 대하여, 朴晟義博士回甲記念論叢.
- 李基文(1984), 開化期의 國文 使用에 관한 研究, 韓國文化(서울대) 5.
- 李秉根(1977), 最初의 國語辭典「말모이」(稿本), 언어 2-1.
- 李秉根(1985), 朝鮮總督府編『朝鮮語辭典』의 編纂目的과 그 經緯, 震檀學報 59.
- 李秉根(1986), 國語辭典編纂의 歷史, 국어생활(국어연구소) 7.
- 李秉根(1986), 開化期의 語文政策과 表記法問題, 국어생활(국어연구소) 4.
- 李秉根(1988), 開化期의 語彙整理와 辭典編纂, 周時經學報(周時經研究所) 1.
- 李秉根(1992), 近代國語 時期의 語彙整理와 辭典의 展開, 震檀學報 74.
- 朱昇澤(1991), 姜璋의 著述과 『古歡堂集』의 史料的 가치, 奎章閣(서울대) 14.
- 崔 嫦(1990), 新補版 韓國新聞社, 一潮閣.